토기 속에 구워진 오리진흙구이 비법 소개

KBS 2TV 생생정보, 14가지 한약재…숙지황까지

4월 25일 KBS 2TV 생생정보의 비법천하 코너에서는 오리 진흙구이 맛집이 소개됐다. 이 맛집에서 판매하는 오리 진흙구이는 450도 고온 가마에 2시간 반을 굽고 1시간 반을 뜸을 들이는 만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최소 4시간 전에 예약 필수다.

'오리 진흙구이'는 부드러운 살코기를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는 맛이 일품이다.

토기 속에서 나온 삼베와 쿠킹호일로 된 2중 3중의 포장을 벗겨내면 익혀진 '오리 진흙구이'의 기름기가 쫙 빠진 모습이 등장한다.

오리 속에는 14가지 한약재를 비롯한 건강한 재료 흑미 찰밥이 꽉 채워졌다. '오리 진흙구이'의 비법은 숙지황을 오리에 뿌려주는 것이다.

▶경인일보 [2018.4.25]

MBC 생방송 오늘저녁, 북경오리 카레코스 눈길

5월 23일 MBC 생방송 오늘저녁 [미식 탐험 코너]에서는 북경오리 카레 코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북경오리와 인도 정통 카레는 물론, 다양한 샐러드와 오리 시래기 탕까지, 한국 중국 인도 삼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조합이 돋보였다.

특히 오리 시래기 탕은 진하고 싶은 국물 맛이 일품.

손님들은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야들야들한 북경오리와, 진한 시래기탕은 양쪽의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뉴스엔 [2018.5.23]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음식

행복 신경전달물질 '트립토판' 오리고기에 다량 함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안오고 울적할 때 행복감을 가져오는 음식이 있을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공개했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 화학물질의 균형과 적절한 공급이 중요하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행복감을 가져오는 뇌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달라진다. 세로토닌은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력 쇠퇴, 불안감, 강박, 우울증, 불면증이 온다. 세로토닌을 충전하려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하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한다.

트립토판은 오리고기, 닭고기, 동물 간, 달걀, 효모, 메밀, 씨앗, 우유, 요구르트, 아보카도, 바나나에서 얻을 수 있다.

가바는 마음의 평온감, 인내심을 가져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가바가 부족하면 떨림, 발작, 불안감, 피로감, 감기몸살, 두통이 발생한다. 가바는 토마토, 양배추, 표고버섯, 감자, 가지, 오이, 귤, 유자, 포도, 발아현미에서 얻을 수 있다.

도파민은 쾌감, 성취감, 활기를 가져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무기력감, 우울증, 파킨슨병이 발생한다. 도파민을 충전하려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아미노산 '타이로신'을 섭취해야 한다. 타이로신은 바나나, 사과, 키위, 생선, 명란젓, 콩류, 견과류, 치즈, 유제품에서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몸을 해치는 폭식, 단음식, 음주 욕구를 줄이고, 대체음식으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

▶EBN [2018.5.22]

오리 독특한 모습 흉내 '오리 춤' 화제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에서 놀이꾼들과 기방예인, 각설이 패들이 오리입과 오리 특유의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풍자해서 추는 춤이다.

입 모양을 오리 입처럼 꾸미고 추는 오리 춤은 동물모방 춤의 하나로 오리의 독특한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광대나 기방예인들이 마당놀이 춤으로 승화시킨 오리 춤은 대표적인 동물모방 춤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오리 춤은 풍자적인 묘사의 극치를 이루고 탈놀이의 일종으로 한바탕 흥과 난장판을 돋구어 삶의 활력을 충전시키고 있다.

▶현대양계 [2018.4.30]

특별한 오리요리 [폴란드 궁정요리] 아세요?

한남동의 비스트로 반(Barn)에서 지난 5월 10일 그 낯선 나라 폴란드의 17세기 음식을 재현해 맛보는 자리가 있었다. 잘 모르는 나라의, 게다가 오래 전 음식이라니 꽤나 난해한 경험이 되리라 예상하고 참석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대보다 훨씬 더 알기 쉬운 음식이었다. 이국적인 다양한 재료로 향을 풍부하게 내는 것이 특징이고, 식초 제조가 발달해 신맛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색이다.

레드와인 소스에 오래 담가두어 겉면이 완전히 검은 색으로 코팅된 오리 요리

정말 특별했던 것은 오리 요리였는데, 레드와인과 시나몬, 꿀, 버터로 만든 소스를 끓인 후에 오리 고기를 넣고 그대로 재워둔 특이한 조리법을 사용했다. 육류를 맛과 향을 낸 소스에 넣고 오래 끓여 부드럽게 조직을 풀어먹기 쉽게 한 것이 보통의 스튜 종류인데, 오래 가열하는 대신 반대로 불을 꺼서 더 이상의 조리를 멈추고, 소스가 식는 동안 고기에 배어들게 한 건 정말이지 독특한 방법이다.

강한 불에 겉을 지져서 속의 촉촉함을 남기는 구이, 즉 스테이크와도 또 다른데 비주얼은 마치 수비드를 한 것처럼 매우 촉촉하고, 육색이 붉은 톤으로 살아 있으며, 겉에서는 짙은 소스가 단단히 밀착되어 마치 태운 듯한 색을 냈다. (발췌)

▶비즈한국 [2018.5.22]

[화제] 아홉마리 새끼오리의 아빠

프레드라는 이름의 이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최근 아홉 마리 오리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엄마 없이 방황하는 새끼들을 발견하곤 보호자를 자청한 건데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아홉 마리씩이나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죠?

다른 건 몰라도 아홉 마리 새끼오리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은 꼭 닮았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mbn [2018.5.23]

인터뷰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직면 문제 임기내 해결 "강한 협회 만들 것"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그는 "최선을 다해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맘 편히 오리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며, "직면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과 계열화사업법 등의 문제를 임기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만섭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강한 협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오리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가전법 수립 과정에서 일선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가전법을 근거로 오리산업을 말살하려는 악법 폐지,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지회 및 지부 활성화, GPS사업 안정화, 협회의 전면 개혁 등의 5개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 · 해결해 오리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입식제한기간 과다적용, 살처분 및 휴지기제 보상금 저평가 등 개악으로 개정된 가전법상 5대 사항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

또한 정부에 계열화사업법 개정요구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화사업법은 농가와 계열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지만, 정부는 계열화사업법내 방역관련 내용까지 추가하는 등 법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섭 회장은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협회가 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직되어 있는 각 시 · 도지회 및 지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회원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지지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협회 회원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2018.5.2]

오리 AI 발생기간 휴지기 단축해야

오리농가들 수급에 막대한 피해

육계 · 육용오리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휴지기 14일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 관련 오리농가들이 수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휴지기간을 7일로 줄여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육계 · 육용오리 농가는 일제 입식 ·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위반시 살처분보상금 20% 감액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휴지기간 7일로 개선 · 육추동 보유농가 미적용

이와 관련해 오리업계는 생산마릿수가 급감해 수급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휴지기간을 7일로 개선해 줄 것과 육추동 보유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 · 출하를 미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사육제한, 휴지기제에 대비해 AI 비위험시기, 업계가 정상적인 오리사육으로 냉동물량을 비축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3만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 ·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화장 1일 새끼오리 생산량은 3만마리 미만이 대부분으로 해당 사육규모에 맞게 일제 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 5개 계열업체 도축장을 제외한 소규모 도축장의 1일 도축 처리능력은 3만마리 미만으로 당일 도압도 불가능하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휴지기간 14일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회전수가 6회전 미만으로 줄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휴지기제 시행농가의 경우 연간 최대 4회전에 불과한 상황이다.

회전수 2회 줄어 농가소득 3,300만원 감소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연간 8회전에서 휴지기간 적용으로 회전수가 2회 감소하면 농가당 약 3,3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며 "소득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법으로만 휴지기를 지정해 오리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오리 수급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AI 발생기간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을 7일로 줄이고 이 기간 외에는 육추동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 · 출하를 미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산업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이지, 입식 자체를 줄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방역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AI 예방을 위해 오리농가들은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수축산신문 [2018.5.15]

오리 · 닭고기 소비 성수기 앞두고

걷히지 않는 먹구름…소비활성화 '요원'

가금업계가 AI 홍역에서 벗어나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 초라한 '초복 성적표'가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위기관리 차원에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초과 입식한 육계와 토종닭 종계의 생산성이 향상돼 공급과잉을 낳고 있어서다. 오리는 입식제한이 풀린 이후 휴지기제 시행에 앞서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입식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가 가금업계 생산자단체까지 번지면서 협회 수급조절협의 자체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경기 하강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18 러시아 월드컵으로 복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한달여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무뎌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계 관측정보에서는 올해 4~5월에 이어 6~7월도 육용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가격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 뚜렷한 소비요인이 없는 가운데 잉여 도계육 DC가 생체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18일 기준 육계시세는 kg당 1,500원으로 생산비 수준을 웃돌고 있다.

토종닭 시세 또한 연일 급락하고 있다. 한 달 전 kg당 2,800원이었던 산지시세는 공급과잉으로 18일 현재 1,400원으로 반토막났다. 더욱이 복성수기를 노린 일부 농장들이 최근 병아리 대거 입식에 나서 암울한 초복경기가 그려지고 있다.

하절기에도 공급과잉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년이었다면 수급조절협의회가 개최되고 위기감을 공유했을 가금업계지만 공정위의 칼날에 계열업체들이 움츠리기에 들어가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가금관련 협회 관계자는 "가금업계 특성상 계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공정위 조사의 장기화로 업계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고, "오리는 시장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고 육계는 각 계열업체 스스로 일정 물량을 도태하고 있지만 복경기 전망은 어두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가금업계 전반에 걸친 침체는 계열업체는 물론 사육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한 육계 위탁사육농장주는 "우리는 계약된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받지만 일반사육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회사가 살아야 농장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라며 근심을 쏟아냈다.

▶농축유통신문 [2018.5.18]

방역대책 더 촘촘하게···동절기 대비하자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제도 개선 · 법령 정비 추진

"AI와 구제역에 대한 전국 이동제한이 풀렸지만 5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유지하며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기관 등 축산현장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순민 국장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소독하는 등 과감한 방역조치로 인해 AI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AI 위험지역의 오리 사육 휴지기제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험지역에 대한 휴지기제에 대해 논란도 있지만 휴지기제는 위험요소를 낮추는 대책으로 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AI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농장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AI가 터졌을 때 SOP에 따라 500m 이내 살처분을 했지만 AI바이러스가 인근 농장으로 연이어 전파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동절기에는 살처분 범위를 넓혔다.

AI와 구제역이 매년 반복해 문제되고 특히 지난해(2016~2017년 동절기)에는 고병원성AI가 국가적 사태로 번지면서 지난해 8월 8일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조직됐다. 방역전담 조직과 전문가가 가축방역에 몰두해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과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농식품부 초대 방역정책국장을 맡은 오순민 국장은 "지난해 AI가 전 국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방역정책국이 생겼고 방역을 총괄하는 임무가 주어지면서 사실 부담감도 매우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가축질병 문제를 억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부와 축산농가들에게 화살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민 국장은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류 등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AI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금을 다시 입식할 때도 농장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금을 출하한 이후 다시 입할 때는 입식신고(계열사, 농가)-자체점검(계열사, 농가)-방역점검(시군)-검사-방역점검(시도) 등 5단계에 걸친 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보다 촘촘한 방역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축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순민 국장은 "지금까지 시행한 방역을 철저히 분석해 미흡했던 사안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방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방역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등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6월말까지 AI ·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8.5.2]

전국최대 오리산지 전남, AI 방역체계 전면 개선

전남도가 해마다 찾아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줄이려고 방역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5월 28일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거의 매년 AI가 발생하는 추세에 맞춰 사육과 방역 과정에 비효율적인 관행과 제도가 있는지 점검한다. 용역에서는 민간 전문기관이 AI 발생 농가 · 연도별 원인을 분석하고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축사 시설을 개선해 사육환경을 바꾸는 방안 연구, AI 예방을 위한 선제 방역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오리 사육 휴지기, 계절별 수급 분석을 통해 사육량 조절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철새도래지 주변과 전국 오리 사육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나주 · 영암 등 밀집 지역의 축사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AI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농가와 일선 시 · 군의 건의 사항 등도 수렴해 방역 개선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5.28]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 ·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임시 성격의 태스크포스(TF)가 아닌 직제상 정식 조직이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내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로 바꾸고,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축산정책국 내 '3개 과'(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 축산환경복지과)는 '3개 과 1개 팀'으로 개편된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기존 축산환경복지과장이 수행해 온 동물보호 · 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된다.

▶뉴시스 [2018.5.14]